

주간 농업농촌동향

2014. 11. 24. Vol. 46

■ 농정이슈

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

■ 정책브리핑

한·뉴질랜드 FTA 양허결과 (농산물·임산물)

■ 연구지원

2013년 가계금융·복지조사 결과

농정이슈

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

금주의 핫 이슈

〈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〉

- **[농식품부,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개최, 11.19.]** 농업인기업인농업계학생 농업분야 전문가정부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FTA 시대 능동적 대응으로 △농업 경쟁력 확보, △6차산업화 통한 농가·농촌 경제 활성화 논의, △기업·농가 상생 협력 협약식 체결
 - **(주요 내용)** 농업을 ICT 융복합의 첨단기술집약 산업,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산업, 농산물의 부가가치 높이는 식품산업, 농촌경제 활성화하는 6차산업으로 육성
- **[박대통령, 농업은 미래성장 산업...FTA를 수출기회로 활용해야]** 농업 미래성장 산업 대토론회 주재, △한·중 FTA와 관련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노력, △농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

〈박대통령 언급 주요 내용〉

- **(과학기술과 ICT 접목해 농업·농촌을 '스마트화해야')** 농업·농촌 발전 위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
- **(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 유망시장 적극 진출해야)** FTA를 수출기회로 적극 활용, 복잡한 원산지 증명 애로 해소, 검역위생 문제 조속 해결
- **(농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)** 농업과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철폐,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활용해 지역의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 연계 통한 R&D·제품개발·판로개척 등 시너지 효과 창출

- **[농식품부,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발표]** FTA는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미래로 도약 하는 기회, **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2017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 달성**

〈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본방향〉

- **(글로벌 경쟁력 있는 농식품 체계 구축)**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, 안전성 강화, 전문 인력 양성 체계 정비
- **(농식품의 6차산업화)** 6차산업 단계별 육성, 로컬푸드·직매장 확대, ICT 기반 직거래 등 신유통 활성화, 지역자원 활용 농촌관광 활성화
- **(수출확대 및 성장동력 확충)** 식품산업 육성, 농업과 기업 상생 협력 확산

- **[언론동향]** 정부, 진부한 대책 아닌 창조적 해법 모색하고 실천 의지 중요, 농민 단체 반발 극복 통해 보조금에 치중하기보다 농가 경쟁력 강화, 투자 통한 농업의 기업화 필요

자료 : KBS SBS YTN(2014.11.19.) / 국민일보·동아일보·매일경제·서울경제·아시아경제·연합뉴스·조선일보·파이낸셜뉴스(2014.11.20.) / 농민신문·서울경제(2014.11.21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 「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- 개방화의 위기를 농업 대도약의 기회로 전환」 (2014.11.19.), 청와대 뉴스 「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모두 말씀」 (2014.11.19.)

▣ 농정이슈

「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방안」 주요 내용

• [비전] 희망찬 농업활기찬 농촌 • [목표] FTA시대 능동적 대응을 위한 농업 경쟁력 확보, 지역 자원 융복합 통한 농촌 활력 창출		
3대 전략	9대 추진과제	주요 내용
글로벌 경쟁력 있는 농식품 기반 구축	• 논밭 들녘 단위로 공동경영 규모화한 '들녘경영체' 육성, 식량자급률 안정적 확보	• 쌀 들녘경영체 확대(2014: 158개소/32천ha → 2017: 500/290), 쌀 재배면적의 36% 담당 •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쌀 공동경영체 육성, 수급안정 도모
	• ICT에 기반한 사설현대화로 시설원예·축산분야 생산성 제고	• 토마토딸기 등 수출유망품목의 스마트 온실 확대(2013: 10천ha → 2017: 16, 전체의 30%) • ICT 융복합 축사모델 확산(2014: 30호(양돈양계 전업농 0.6% → 2017: 750(16))
	• 농업분야 정예인력 육성 위해 선진국 수준의 직업 교육 중심으로 농업계학교 혁신	• 농고 → 한농대 → 농대 축으로 한 직업교육체계 확립 • ICT 기능 현장 활용도 제고 위해 첨단기술교육체계(가정, 토마토 대학) 구축 • 국내에 해외 선진기술 전용 실습장 추진
농식품의 6차산업화	• '농업 창업 → 사업화 → 판로확보' 등 6차산업화 단계별 지원 강화	• (창업보육) 창업부터 기술시제품 생산 지원하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확대 • (자본) 6차산업화 전문펀드 운용(200억 원), 시설운영자금 지원 • (경영능력) 지역별 6차산업화 활성화 지원센터(2014: 9개소)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• (판로) 홈쇼핑, 인터넷쇼핑, 대형유통업체, 로컬푸드 직매장 등 판매기회 확대
	• 로컬푸드직거래 등 신 유통 확산(2017: 전체 농산물 유통의 15%)	•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(2014: 3개소 → 2017: 120), 로컬푸드 레스토랑 활성화 • 지자체 표준 조례 권고안 제정(2015)으로 로컬푸드 활성화(2014: 27곳 → 2017: 79)
	• 지역자원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(2012: 국내관광 중 농촌음식관광 4.1% → 2017: 8%)	• 농촌체험마을 등급제를 전체마을로 적용 확대(2014: 300 → 2017: 전체마을) • 농어촌 민박 조식제공 등 규제완화, 예약서비스 제공, 중국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
수출 확대 및 성장동력 확충	•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통해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	•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 비율 확대(2014: 29.7% → 2017: 34.7) • 미래시장을 주도할 전략품목 10개(즉석식품, 천연재료 식품, 글루텐프리 식품 등) 개발
	• 중자, 농기계, 동물의약품 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(2017: 24억 달러)	• 민간육종단지(집제), 농진청(전주), 방사선육종센터(정읍) 연계해 중자삼각벨트 구축 • 지역별 수출전략형 농기계 R&D 확대, 동남아시아 ODA와 중고농기계 수출 연계
	• 기업의 역량 및 노하우를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 하기 위해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	•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 5개 유형 중 △수출협력형, △공동출자형 등 공동 참여, 이익 공유할 수 있는 심층적인 협력모델 발전 유도 • 기업과 농업계의 선도적인 상생 협력 비즈니스 모델 확산(2014: 4개사 → 2017: 20)
• [현주소] 급속한 개방화, 경영주 고령화, 소득 정체 • [대내외 여건] 수출시장 확대, 세계 농식품시장 성장, ICT·BT 첨단기술 융복합 여건 성숙, 농촌 신가치 확산		

▣ 농정이슈

□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주요국 동향

<중국·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>

- [중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, 11.17.] G20 정상회의 계기 두 양국 간 정상 회담에서 그동안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호주의 노동시장 개방 등의 쟁점 놓고 난항 거듭했으나 합의 성공
 - (중국) 자국의 풍부한 노동인력 호주에 수출, **경제영토 확대 도모***
 - ※ 앞서 아세안과 파키스탄, 싱가포르 등 FTA 체결한데 이어 한국·호주 FTA 잇따라 체결
 - (호주) **주력 수출품인 농축산물과 와인, 유제품 등 단계적 무관세로 중국 수출**, 연간 최대 200억 호주달러(19조 원) 수출 효과 전망

자료 : NEWSis·매일경제·머니투데이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조선일보·중앙일보·파이낸셜뉴스(2014.11.18.)

<미·일 TPP 협상 조기 종결 노력하기로>

- [마일 정상 양국 간 방위협력지침 개정 합의, 11.16.] △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협력 강화, **△TPP 체결 위한 양국 간 협상 조기 종결 노력**
 - ※ 미국이 사실상 중국 중심 무역블록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고 있는 TPP 협상에는 현재 12개국 참여 중이며 미·일 협상 타결이 관건
 - 한편, 미국 오바마 대통령, 한·중·일 정상회담 실현 관련 한일관계 개선 기대감 표명
 - ※ 앞서(APEC 정상회의) 박대통령, 한·중·일 정상회담 개최 희망 표명, 일본 아베 총리도 원한다고 반응해 성사 가능성 주목

자료 : KBS·YTN(2014.11.16.) / 매일경제·서울경제·연합뉴스(2014.11.17.)

- [미국 TPP, 중국 RECP·FTAAP 주도 속 FTA 경제영토 확장] 각국 FTA 체결로 경제 블록화 주력, 경제영토 확대 추진

자료 : 문화일보(2014.11.14.) / 연합뉴스TV(2014.11.15.) / 한국경제(2014.11.17.) / 한국일보(2014.11.18.)

<정부, TPP 참여 가속화 전망>

- [한·중국뉴질랜드 FTA 잇따라 타결...TPP 참여 가속화 전망] TPP 참여 유리한 입지 확보, TPP 예비 양자협의 협상력 제고* 기대, 한편 한국재계 조속한 TPP 참여 희망
 - ※ TPP 회원 12개국 가운데 일본·멕시코 제외한 10개국과 FTA 체결
- [청와대, 타결된 FTA 비준 촉구] 중국·호주 등 3개국 순방 마친 박대통령,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선 이번에 타결된 **FTA 제때 비준 이뤄져야** 한다고 강조

자료 : KBS·경향신문(2014.11.17.) / 경향신문(2014.11.18.) / 농민신문(2014.11.19.) / SBS(2014.11.21.) / 매일경제·연합뉴스(2014.11.22.)

FTA 추진 관련 주요 동향

- **[한뉴질랜드 FTA 타결 공식 선언, 11.15.]**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두 정상간 양국 **이익균형 확보방안**에 합의, FTA 협상 시작(2009.6.)한 지 5년 5개월 만
 - **(의의)**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, 영연방 3개국(호주캐나다뉴질랜드)과 FTA 완료한 동시에 총 52개국과 FTA 체결, GDP 기준 **경제영토 73.45%** 확대
 -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에 대해 양허 제외(쌀·천연꿀·과실(사과·배·감 등)·고추·마늘·녹차·오징어 등), 쇠고기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 10년 초과 장기철폐
 - ※ 낙농품(탈진지분유·치즈·버터 등) 및 홍합의 경우 과거 대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(TRQ) 부여
- 자료 : KBS SBS-YTN(2014.11.15.) / 경향신문·국민일보·내일신문·동아일보·서울경제·연합뉴스·파이낸셜뉴스 등(2014.11.17.) / 경향신문·머니투데이·서울경제·서울신문·세계일보·한국일보(2014.11.18.) / 농민신문(2014.11.19.) / 농축유통신문·한국농어민신문(2014.11.21.)
- 참고 :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한뉴 FTA 5년 5개월간 충분한 논의끝에 타결, 한뉴질랜드 FTA 의의 및 주요내용」(2014.11.16.)
- **[한-뉴질랜드 FTA 타결 기대효과]**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치와 달리, 교역 구조 변화 등으로 현실과 차이 있을 수 있어 냉철한 접근 필요
 - **(정부)** 중국 내수시장 확보, 뉴질랜드 수출 활성화 기대, FTA 비준동의안 촉구
 - **(전문가)** 중국 생산역량 높아져 중간재·자본재 자급률 상승, 뉴질랜드 교역규모 크지 않아(교역규모 44위) 수출액 전망 실체와 다를 수도, FTA 협상 결과보다 이후 정부 전략(중장기대책 재검토)과 사후관리 중요
 - **(국회·농민단체)** 동시다발적 FTA로 위기감 고조, 막대한 농업피해 우려, 무역 이득공유제 시행 요구
- **[중국, 한중 FTA 발효 시점 2015년 하반기 전망*]** 실질적 타결 선언한 한중 FTA 협상 여전히 진행 중, 일부 기술적인 문제 곧 마무리돼 2015년 초 서명절차 진행
 - ※ 왕서위원 상무부 부장조리, “한·중 FTA 협상 연내에 완전히 끝내고 내년에 가능한 한 빨리 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힘쓸 것”, “순리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”
- **[최경환 부총리, 한중 FTA 내일 있는 보완대책으로 농수축산업 피해 최소화]**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제(11.21.), 한중 FTA는 **경제에 새로운 성장요인 작용 전망**
- **[농식품부, 지역농정협의회 개최, 11.18.]** 16개 지자체 참석, **한중 FTA 협상결과 공유, 수출확대 방안, 국산 농식품 확대 방안 등 향후 대책 수립방향 논의**
- **[한베트남 FTA* 제8차 협상 개최, 11.17.-21.]** 정부, **연내타결 목표**로 상품·서비스 투자원산지통관협력 등 논의
 - ※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, 경제통상관계 강화 계기 마련

자료 : 매일경제(2014.11.15.) / 경향신문·국민일보·내일신문·아시아투데이·아주경제·중앙일보·한국경제·한국일보(2014.11.18.) / NEWSis·국민일보·서울경제·연합뉴스(2014.11.19.) / KBS·농민신문·농수축산신문·동아일보·축산신문·한국농어민신문·한국농업신문(2014.11.21.) / NEWSis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이투데이·조선일보(2014.11.22.)

참고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「한국-베트남 자유무역협정(FTA) 제8차 협상 개최」(2014.11.17.),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지자체와 머리 맞대어 한중 FTA 대응방안 모색 - 1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농정협의회 개최 -」(2014.11.19.),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「제1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」개최」(2014.11.21.)

동반성장위원회, 순대·장류 등 6개 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

- **[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, 11.17.] 6개 품목(순대, 청국장, 간장, 고추장, 된장 등)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(3년),** 대기업 ‘사업 확장’·‘진입 자체’ 권고(2017.9.30.까지)
 - ※ 11월 말로 합의기간 끝나는 21개 품목 중 6개 품목은 민생품목임을 고려해 재선정

구분		품목명	
재합의(21)	14개 품목 (9.30. 만료)	재 합 의(6)	골판지상자, 청국장, 순대, 간장, 고추장, 된장
		시장감시(2)	기타 인쇄물, 이스콘
		상생협약(1)	세탁비누
	7개 품목 (11.30. 만료)	추가 논의(5)	금형 2개(프레스, 플라스틱), 막걸리, 전통떡, 자동차제조부품
		상생협약(7)	단조 7개(보통강, 특수강, 기타철강, 알루미늄, 스테인리스, 동, 기타비철금속)
신규(3)		시장감시(1)	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
		한시보류(1)	고소작업대 임대업
		추가 조정협의(1)	문구소매업

- **[농식품부, 중소 두부업체에 ‘두부 중소기업 적합품목 제외’ 도움 요청]** ‘콩 저율 관세할당(TRQ) 운영 개선 협의회(11.14.)에서 재지정 앞두고(11월 말) 중소 두부업체들이 두부 중소기업적합품목 제외 위해 노력하기로
 - ※ (정부입장) 그동안 중소 두부업체 어려움 감안해 콩 TRQ 물량 적정 수준 유지, 특히 가격을 수년간 1kg에 1,020원대(국산 콩 가격의 20~30%에서 동결), 이제는 업체들이 콩 농가의 어려움 경감 위해 도움 필요 강조

자료 : 농민신문·머니투데이·서울경제·연합뉴스·이투데이·파이낸셜뉴스·한겨레(2014.11.19.)

농식품부, 2015년부터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

- **[2015년 농업수입보장보험 본격 도입 추진 시범사업 대상 3개 품목(양파·콩포도) 선정*, 가격하락재해로 인한 수량위험에 대한 종합적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기존 소득 안정체계 한계 보완]**
 - ※ (품목선정) 2013~2014년 양파, 콩, 포도, 시설오이, 감귤, 한우 등 11개 품목 대상으로 가격과 수입변동성 등 도산연습·사전조사 연구 거쳐 시범대상 품목 선정
 - ※ (사전조사 결과)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비해 양파 21.6%, 포도 27% 감소에 그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

㉔ 농정이슈

〈농업수입보장보험이란〉

- 품목별 조수입(평년수확량 × 평년 가격)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며, 기존 재해보험의 수량보장에 더하여 가격위험을 추가로 보장하는 농가경영안정제도
- 실제수입*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수입* 보다 적을 경우,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
 - * 실제수입 = 개별 농가의 실제생산량 × 수확기(도매)시장가격
 - ** 보장수입 = 개별 농가의 평년생산량 × 평년시장가격 × 보장률(60~80%)

- (시행 주체 및 대상지역) 농협손해보험 시범사업 담당, 주산지 고려해 품목별로 4~5개 사군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할 계획

자료 : YTN(2014.11.18.) / news1NEWSis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(2014.11.19.) /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(2014.11.21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 - 양파, 콩, 포도 우선 도입하며, 종합적 농가경영안정제도의 첫발 내딛어 -」(2014.11.18.)

□ 농식품부, 농업 기후변화 영향 5년마다 조사

- [농식품부, 농업·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·취약성평가 법적 근거 최초 마련]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·취약성 평가*와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2014.5. 공포) 일부 개정안 시행(11.21.)

* 본격적인 영향 및 취약성 평가는 농촌진흥청, 산림청에 세부시행기준(고시안 제정) 마련하여 2015. 하반기부터 추진

- (영향평가) 기후변화가 농작물(가축)의 생육 및 생산성과 농업 기반시설, 농업생태계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
- (취약성평가) 기후변화의 심각성, 농업농촌의 환경의 반응정도, 정부농업인의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평가

- (주요 내용) 기후 변화가 농어업·농어촌에 미치는 영향,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공표

자료 : NEWSis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투데이파이낸셜뉴스(2014.11.21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농식품부, 기후변화 영향·취약성평가 법적 근거 최초 마련 - 11월 21일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시행 -」(2014.11.21.)

□ 농관원, 묵은쌀·햅쌀 부정혼합판매 단속

- [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쌀 부정유통 단속, 11.19.~12.31.] RPC 등 양곡가공업체 및 시중 양곡 유통업체대상 햅쌀 출하시기에 묵은쌀과 햅쌀 혼합판매, 생산연도·도정연월일 등 양곡의무표시 사항 특별점검 실시
- (취지) FTA, 쌀 관세화 등 국내 쌀시장 여건 변화 대응해 소비자생산자 보호, 수입쌀 저가진고 방지, 해외 직접구입에 따른 무분별한 도입 방지

㉔ 농정이슈

- (대상품목) △미곡류: 멥쌀, 찰쌀, 메현미, 찰현미, 흑현미, 발아현미, 유색미 등, △맥류·두류·잡곡류: 보리쌀, 콩, 팥, 녹두, 조, 수수, 교잡곡물 등, △서류: 감자, 고구마, △기타: 곡류·서류의 압착물·분쇄물·가루·전분류 등

* (위반조치) △거짓·과대 표시 및 광고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, △미표시: 5~200만 원 이하 과태료, △표시방법 위반: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1(최저 5만 원 이상) 부과

자료 : SBSYTN내일신문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(2014.11.19.) / 한국농업신문(2014.11.21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농관원, 쌀 부정유통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 - 햅쌀과 묵은쌀의 혼합판매 특별점검, 수입쌀 해외직접구입 등 대비 -」(2014.11.19.)

□ AI 발생 지역 머문 청둥오리 국내 유입

- [겨울철새 청둥오리 국내 유입, AI 차단방역 비상] 농림축산검역본부, 천안시 봉강천 이천시 북하천에서 위치추적기(GPS) 부착(2월, 3월)한 청둥오리 세 마리*가 중국과 내몽골 거쳐 경기도 양평군 삼산천과 여주시 및 이천시 북하천에서 발견(11.14~15.)

* 중국 내 체류한 지역들은 지난 9월 HPAI H5N6가 발생 or 인근으로 철새들의 채식 활동 반경 내에 속하는 지역, 철새 전문가에 의하면 몽골과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이동하는 오리류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중간 기착지임.

- (방역 강화) AI 유입방지 위해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 강화 당부

- [전북 김제 오리농장 고병원성(H5N8) AI 확진, 11.17.] AI 의심신고(11.5.) 접수,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, 지난 AI 발생(11.7.)한 씨오리 농가에서 600m 근접

- [농식품부,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, 11.18.~12.8.] AI 방역 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

- (주요 내용) △용어 변경 및 추가, △방역주체별 방역의무 및 효율성 강화, △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완화

자료 : KBS·YTN(2014.11.17.) / NEWSis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헤럴드경제(2014.11.18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11.21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위치추적기(GPS) 부착 청둥오리, 중국에서 경기도 양평 삼산천과 여주 이천 북하천에 도착 - 겨울철새의 국내유입에 따른 오리닭 사육농가의 차단방역 강화 당부 -」(2014.11.17.), 입법예고_「『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』 등 개정(안) 행정예고」(2014.11.18.)

〈네덜란드·영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〉

- [네덜란드 양계장에서 고병원성(H5N8형) AI 발생]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AI 바이러스 검출돼 닭 15만 마리 살처분, 전국 가금류와 달걀 수송 금지령(72시간), 반경 10km 이내 양계장 16곳에 대해 30일간 가금류와 달걀, 부산물 반출 금지

농정이슈

- [영국, 잉글랜드 북부 요크셔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] AI 발생한 오리 농장 반경 10km 내 통행제한 조치, 오리 살처분 지시
 - [농식품부, 네덜란드 및 영국산 가금 등 수입 금지 조치, 11.17.] 네덜란드·영국 검역당국에서 자국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 사실 발표(11.16.)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살아있는 닭·오리·애완조류(앵무새 등)·가금육(닭고기, 오리 고기 등) 수입 금지
 - ※ 독일(11.4. H5N8), 네덜란드(11.14., H5N8), 영국(11.14. H5, 치명적인 H5N1형 아님)
- 자료 : KBS·SBS·한국일보(2014.11.17.) / YTNnews·매일경제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이투데이(2014.11.18.) / 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이투데이·파이낸셜뉴스·헤럴드경제(2014.11.19.) / 농민신문·한국농어민신문·한국농업신문(2014.11.21.)
- 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농식품부, 네덜란드 및 영국산 가금 등 수입금지 조치 - 동축산물 수출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-」(2014.11.18.)

정책브리핑

정책브리핑 한·뉴 FTA 양허결과 (농산물 및 임산물)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·농림축산식품부(2014.11.16.)

■ 개요

- [주요내용] 상품, 서비스투자, 규범(원산지, 통관, 정부조달 등), 농림수산업자 협력과 인력이동 약속 포함하는 포괄적 FTA
 - (뉴질랜드) 수입액 기준 92% 즉시, 96.5% 3년, 97.6% 5년, 전품목 7년내 관세철폐
 - (한국) 수입액 기준 48.3% 즉시, 61.8% 5년, 78.3% 10년, 96.4% 15년내 관세철폐

■ 한·뉴질랜드 FTA 양허내용

한국(뉴질랜드산)	관세 철폐	뉴질랜드(한국산)
와인, 차약, 의약품, 양탄자, 선박부품 등	즉시	타이어, 세탁기, 전선, 축전지, 면류, 커피류 등
메탄올, 버터, 기초화장품, 홍합, 의류 등	3년 내	냉장고, 화장품, 자동차부품, 간절충장비, 냉연강판 등
소시지, 초콜릿, 오징어, 조개, 바닷가재 등	5년 내	철강관, 도금강판, 편직물 등
밀기, 맥주, 물, 뱀장어, 마카로니, 키위(6년 내) 등	7년 내	방열기(자동차용), 변압기, 합판 등
홍어, 보드카, 시금치 등	10년 내	-
쇠고기, 요구르트, 감자, 양파, 고등어 등	15년 내	-
쌀, 꿀, 삼겹살 고추, 명태(냉동), 사과, 배, 포도 등	양허제외	-

- [한·미(12.3%)/한·EU(14.5%)에 비해 보수적* 수준] 양허제외 및 예외적 취급(TRQ/부분감축/계절관세/10년초과 장기철폐)이 전체 농산물(1,500개) 중 40.1%(602개)
 - ※ 한·호주 FTA: 38.5%, 한·캐나다 FTA: 18.8%
- [주요 농산물 194개(품목수 기준 12.9%) 품목은 양허제외] 쌀, 돼지고기 삼겹살, 꿀, 감귤, 사과, 배, 고추·마늘·양파(냉동제외), 인삼 등
 - ※ (양허제외) 한·미 1.0%(16개), 한·EU 2.8%(41), 한·호 10.5%(158), 한·캐 14.1%(211)
- [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] 저율관세할당(TRQ), 계절관세, 부분감축 및 농산물 셰이프가드(ASG) 등

- TRQ(4개 품목, 25개 세번): 탈전지분유·연유, 치즈, 버터, 조제분유
 - 계절관세(2개 품목, 2개 세번): 감자, 호박
 - 부분감축(6개 품목, 12개 세번): 옥수수, 콩, 맥아, 전분, 사료용 근채류 등
 - ASG(1개 품목, 8개 세번): 쇠고기
-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등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 차별화(품목수 기준 59.9%)
 - ※ 즉시~10년철폐 비중(품목수 기준): 한·미 FTA 87.7%, 한·EU FTA 85.5%, 한·호 61.5%, 한·캐 81.2%

정책브리핑

기체결 FTA 대비 농림수산물 양허 비교

구분	한뉴질랜드	한미	한EU
양허제외 품목수	199개	16개	44개
조제분류	13년/15년+TRQ	10년+TRQ	10년+TRQ
천연꿀	양허제외	현행관세+TRQ	현행관세+TRQ
사과	양허제외	후지산 20년 (기타품종 10년)+ASG	후지산 20년 (기타품종 10년)+ASG
배	양허제외	동양배 20년(기타품종 10년)	동양배 20년(기타품종 10년)
호박(신선/냉장)	계절관세(5년/현행)	즉시	즉시
오징어(냉동)	양허제외	10년(비선형)	양허제외
홍합(자숙)	현행관세+TRQ	3년	7년

주요 농산물 양허결과

- **[쌀]** 쌀 및 쌀 관련 제품(16개 세 번) **협정적용 대상 제외***
 - ※ 관세철폐 의무 이외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적용 배제
- **[쇠고기]** 뉴질랜드측 관심품목인 쇠고기(18%, 40%)에 대해 **15년 철폐 확보** (2015년 발효 시, 한미 FTA 보다 3년 더 길게 관세 철폐하는 효과)
 - **(ASG 설정)** 갈비, 도체와 이분도체 등 주요 세번(8개)
 - ※ (ASG 초기물량) 2009~2011년 평균 수입량의 110%, 증량율: 복리 2%
- **[돼지고기·닭고기]** 돼지고기(18~30%) 삼겹살, 넓적다리·어깨살, 도체와 이분도체 양허제외, 나머지 부위 7~18년 철폐, 닭고기(18~27%) 18년 철폐 및 양허제외
- **[낙농품]** 원유 수급 조절 중요 품목인 탈지분유(176%)와 연유(89%) 현행관세 유지하되 TRQ 부여
 - 치즈(36%) 7~15년 철폐, 버터(89%) 10년 철폐, 조제분유(36, 40%) 13년, 15년 철폐하면서 각각 TRQ 부여
- **[과실류]** 사과(45%), 배(45%), 포도(45%), 감귤(144%), 오렌지(50%), 딸기·자두(45%), 감(50%) 등은 양허제외, 키위(45%) 6년 철폐
- **[곡류]** 보리(324~513%), 대두(사료용, 콩나물용, 기타, 487%) 양허제외, 대두(채유 및 탈지대두박용, 487%)와 옥수수(328~630%) 10년간 50% 관세감축
 - 식용감자(304%)는 칩용에 대해서만 계절관세(12~4월 즉시철폐, 5~11월 15년 철폐) 부여, 기타에 대해서는 양허제외
- **[양념채소 및 특작]** 고추(270%), 마늘(신선/냉장, 건조, 360%), 양파(신선/냉장, 건조, 135%), 인삼류(수삼/홍삼/백삼, 222.8, 754.3%, 참깨(630%), 땅콩(230.5%) 등은 양허제외

정책브리핑

- 호박(27%) 계절관세(12~5월 5년 철폐, 6~11월 현행관세 유지), 마늘(냉동, 27%) 18년 철폐, 양파(냉동, 27%) 15년 철폐

주요 임산물 양허결과

- **[임업분야 유리하게 타결]** 안정적인 목재원료 확보*, 합판 등 수출품은 유예 또는 양허제외
 - ※ 국산목재 생산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 목재자급률은 2013년 기준 17%에 불과
- **(FTA 협정문에 수출세 부과 금지조항 삽입)**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임산물 99.9%가 목재류로 그 중 86%가 원목, 원자재에 해당하는 원목은 이미 무관세(無關稅)상태
- **(임업분야 피해 매우 적을 것으로 분석)**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합판, 섬유판 등의 목재류의 23%를 10년 초과 20년 이내 장기철폐(72개) 및 양허제외(2개)로 보호
- **(밤표고 등 핵심 단기소득임산물도 현재 수입액 미미)** 16.4%는 양허제외(19개), 25%는 10년초과 20년 이내 장기철폐(29개)로 보호하여 향후 수입액 증가에 대비

한·뉴질랜드 FTA 임산물 양허결과

총 435개	단기임산물 116개		목재·석재류 319개	
양허제외(21개)	19개	호두, 밤, 대추, 감, 표고, 도라지, 더덕 등	2개	파티클보드 1종, 합판 1종
20년철폐(4개)	-	-	4개	합판
18년철폐(6개)	6개	목이, 송이, 은행 등	-	-
15년철폐(43개)	23개	송이, 송로, 고사리, 고비, 죽순 등	20개	파티클보드, 섬유판
12년철폐(48개)	-	-	48개	합판(주로 6mm이하), 성형목재
10년철폐(108개)	46개	아몬드, 헤이즐너트 등	62개	섬유판, 건축용 목제품, 코르크
7년철폐(45개)	5개	새털, 로진 등	40개	제재목, 석재
5년철폐(83개)	14개	올레오레진, 수피 등	69개	단판, 석재
3년철폐(27개)	-	-	27개	멜나무, 단판, 목탄
즉시철폐(50개)	3개	층자	47개	원목

향후 일정

- △피해영향 분석, △후속 협정체결 절차 대응 철저, △농업안협화학적 대상으로 협상 결과 설명 및 동향 점검, △농민·관련단체로부터 주기적 의견 수렴 통한 **국내 대책 보완 지속 추진**

연구지원 2013년 가계금융·복지조사 결과

자료 : 통계청·금융감독원·한국은행(2014.11.14.)

총괄

- [통계청·금융감독원·한국은행 공동, 2013년 가계금융·복지조사 결과 발표] 전국 2만 표본가구 대상으로 가구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, 경제적 삶(well-being)의 수준변화·지속기간 등 미시적 파악
 - ※ (조사 기준시점 및 대상기간) 자산, 부채, 가구구성: 2014. 3. 31. 현재 / 소득·지출·원리금상환액: 2013.1.1.~12.31.
- [2013년 가구 평균소득지출] 평균소득 4,676만 원, 지출 3,151만 원, 흑자 1,525만 원
- [2013년 3월 말 현재 순자산] 2억 7,370만 원, 전년대비 2.0%↑
- [2013년 순자산분포] 순자산 보유 0~3억 원 68.8%, 10억 원 이상 4.1%

주요 내용

- [2013년 3월 말 현재 가구당 보유자산] 3억 3,364만 원, 전년대비 2.1%↑
 - (가구특성별) 연령대 50대(4억 3,025만 원), 종사상지위 자영업자(4억 7,326만 원) 자산이 가장 많음.
 - (자산운용)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(47.0%) > 부동산구입(23.4%) > 부채 상환(23.4%) 순으로 선호
- [2013년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] 5,994만 원, 전년대비 2.3%↑
 - (가구특성별) 연령대 50대(7,911만 원),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가구(8,995만 원) 가장 높음.
 - (보유가구 특성)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9.1%가 금융부채 보유, 이들 금융부채 보유가구*의 평균 소득 5,399만 원, 자산 3억 6,511만 원, 금융부채 6,926만 원
 - ※ (연령대별) 40대(72.3%) > 30대(70.6%) > 50대(65.1%) > 60세 이상(34.7%) 순
 - ※ (보유액) 50대(8,018만 원) > 40대(6,962) > 60세 이상(6,831) 순
- [2013년 가구 평균소득] 4,676만 원, 전년대비 4.4%↑
 - (특성별) 근로소득 3,026만 원(전년대비 4.8%↑), 사업소득 1,170만 원(전년대비 4.0%↑)

- (가구소득 분포) 1천만 원 미만(12.8%), 1~3천만 원(25.5%), 3~5천만 원(25.6%), 5~7천만 원(15.9%), 7천만 원~1억 원(12.0%), 1억 원 이상(8.1%)
 - ※ (연령대별) 30대 미만 1,000~3,000만 원, 60세 이상 1,0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으며, 50대 가구 중 1억 원 이상 가구도 13.8% 차지
- [2013년 가구 평균 소비·비소비지출] 소비지출 2,307만 원(전년대비 0.2%↑), 비소비지출 844만 원(전년대비 1.9%↑)
 - (소비지출*) 식료품 633만 원(27.4%), 교육비 334만 원(14.5%), 주거비 303만 원(13.1%)
 - ※ (연령대별) 식료품을 제외하면 40대 및 50대 가구는 교육비(21.9%, 15.9%), 60세 이상 가구 의료비(12.0%)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음.
 - (비소비지출*) 공적연금·사회보험료 274만 원(32.5%), 세금 206만 원(24.5%), 이자비용 183만 원(21.6%)
 - ※ (연령대별) 50대 이하 가구는 공적연금·사회보험료, 60세 이상 가구는 이자비용이 가장 높음.
- [2013년 3월 말 현재 시도별 평균 자산규모] (상위지역) 서울, 경기, 울산 / (하위지역) 전북, 강원, 전남
- [2013년 3월 말 현재 시도별 부채규모] (평균 이상) 서울, 경기, (평균 이하) 전북, 전남, 경북
- [2013년 시도별 소득규모] (상위지역) 울산, 경기, 서울 / (하위지역) 전북, 강원, 제주
- [2013년 빈곤율*·빈곤갭**] 균등화 처분가능소득(중위소득 50%기준) 빈곤율 16.4%, 빈곤갭 36.4%
 - ※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 50%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상대적 빈곤율
 - ※※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빈곤선(중위소득 50%, 1,118만 원)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(711만 원)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
- (가구특성별) 가구원수·취업자수 증가할수록 빈곤율 감소*
 - ※ 가구원수: 1인(51.8%) → 4인 이상(8.4%), 취업자수: 0인(71.5%) → 3인 이상(3.4%)
- (개인특성별) 아동연령층(18세 미만) 11.8%, 근로연령층(18~65세) 11.8%, 은퇴연령층(66세 이상) 49.7%
- [2013년 3월 말 현재 노후생활]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 66.2세, 실제 은퇴 연령 61.3세
 -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14.0%로 생활비 충당정도는 ‘여유 있는 가구’ 6.7%인 반면, ‘부족한 가구’ 42.2%, ‘매우 부족한 가구’ 20.9%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관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